

종교와 국가의례 사이: 1920-30년대 일본신도를 둘러싼 조선 내 갈등과 서구인들의 인식*

안 중 철**

-
1. 서론
 2. 일본 내 신도의 종교성 논란
 3. 조선신궁(朝鮮神宮)건립과 신사참배문제의 대두
 4. 1930년대 신사참배 강요와 서구인들의 인식
 5. 결론
-

■ 국문요약

이 글은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신사참배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살피면서 당시 조선에 있었던 서구인들의 신도에 대한 인식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20년대 일제는 영미협조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조선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 ‘만주사변’, 특히 1937년 중일전쟁발발 무렵에 일제는 후방의 동원을 위해 조선 내의 모든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당시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미국선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조지 맥쿤에서 보듯이 ‘신도종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는 당시 동경제국대학교의 종교학과 법학교수들의 ‘신도종교론’적 입장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들 이노우에 테츠지로나 호즈미 노부시게 등의 황국사관이나 황도법학 등은 반서양적 논리와 일본의 특수성에 호소하는 것이었지만 이들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의 20-29면과 다른 일부를 수정·확대해서 작성한 것이다.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의 주장은 선교사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반대논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호레이스 언더우드에게서 드러나듯이 현실적으로 신사예식의 종교적 부분 이외에는 얼마든지 신사참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인물들도 있었다. 특히 미국 외교관들과 대부분의 일본 내 선교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종교상대론적 입장에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도와 천황제가 긴밀하게 결합되어있었음을 생각할 때 이는 전후 천황제문제의 처리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암시해준다.

주제어 : 신사참배, 미국선교사, 조지 맥쿤(윤산온), 호레이스 언더우드(원한경), 이노우에 테츠지로, 호즈미 노부시게, 신도종교론, 천황제

논문 투고일: 2010.03.30. / 심사완료일: 2010.05.11. / 게재 확정일: 2010.05.13.

1. 서론

신도[神道-이하 신도]는 일본 고유의 무속종교로서 불교와 더불어 일본의 민간전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1868)을 단행한 후 서구사회의 기독교 국교화 정책을 모방해서 천황을 구심점으로 신도를 국교로 삼으려고 했다. 이러한 시도는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사절단이 조약개정을 위해 구주를 순방할 때(1871-72) 서구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그러나 신도는 일본 천황제가 존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고 천황을 전면에 내세웠던 메이지유신의 성격상 신도는 일본의 비공식적인 ‘국교’의 역할을 감당했다.¹⁾

개화기부터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일본거류지에 진자[神社-이하 신사]를 설립했는데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는 공식적으로 조선 내에 각종 신사를 건립했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는 1925년 조선신궁[朝鮮神宮-이하 조선신궁]을 남산에 설립하면서 전설상의 천황의 조상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와 일본근대화의 상징인 메이지 천황의 ‘영령(英靈)’을 ‘모셔서(鎮坐)’ 제국의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므로 이미 식민지조선의 조선신궁 건설과 신사설립에 대해서 학자들이 주목을 해왔다.²⁾

-
- 1) 명치유신 후인 1871년, 일본 당국은 천황가의 조상신을 모시는 이세(伊勢)신궁을 정점으로 전국 각지에 관·국폐사(官·國幣社), 산토사(産土社)를 위계적으로 편성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관폐사’는 궁내성이 재정운영을 담당하고 역대 천황·황족을 모시는 신사이고 ‘국폐사’는 지방관이 재정과 제사를 관장하는 신사였다. 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 이원범 역, 『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신흥종교』(소화, 2002), 26-32, 205-207면.
 - 2) 조선신궁의 건립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김대호,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朝鮮神宮 건립과 운영』(『韓國史論』50, 서울대 국사학과, 2004); 손정목, 『朝鮮總督府의 神社普及·神社參拜 強要政策研究』, 김승태 엮음,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253-359면 참조.

그렇지만 당시 조선과 관련된 서구인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전후 한국에서 3년간 미군정이 실시되고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미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으므로 서구인들이 천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전후 조선에서 신사참배문제와 관련된 종교계의 친일논란과 일본 내에서 천황제 유지 정책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당시 조선에 거주하고 있었던 서구인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은 다른 서구인들의 식민지와 달리 아시아제국인 일본의 식민지, 즉 일본 제국 내에 독자적인 ‘제국’ 공간 속에 살고 있었다.³⁾ 일제는 적어도 1920년대까지 영미협조외교정책 때문에 서구인들, 특히 이들이 경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신도문제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일제는 공·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식민지조선에서는 미국 선교사들의 교육사업의 철수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⁴⁾ 그것은 미일간에 갈등으로 발전할 뻔했다는 점 등이 규명이 되었다.⁵⁾

이 글은 당시 구미인들이 이 시기 신사참배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

-
- 3) 식민지시기 주일 선교사 조지 풀턴(George Fulton)은 미 북장로교파의 최대 선교지부인 평양을 둘러보고 선교사들의 활동지역을 “제국 속의 제국”이라고 표현했다. 李省展, 『アメリカ人宣教師と朝鮮の近代: ミツシヨンスクールの生成と植民地下の葛藤』(東京: 社會評論社, 2006), 42면.
- 4) 이에 대해서는 안종철, 『미국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제 2장; 동 저자, 『중일전쟁 발발 전후 신사참배 문제와 평양의 기독교계 중등학교의 동향』(『한국문화』4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12)을 참고.
- 5) 물론 국무부 극동국, 주일 미대사관, 서울 총영사관 측 인사들은 주재국의 종교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조선 내 대다수 선교사들과 입장을 달리했다. 이에 대해서는 안종철,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미 국무부의 대응, 1931-1937』(『한국사연구』145, 한국사연구회, 2009. 6)을 참조.

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서구인들은 한국인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에 일정한 영향력을 주기도하고 받기도 했다. 둘째, 이들 선교사들과 신사참배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1930년대에 미일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외교관들 중 상당수는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동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후정책에 개입했다. 이들 상당수는 전후에 천황제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⁶⁾ 그러므로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식민지 후반 조선 내 서구인들, 특히 선교사들의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신도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자 한다.

2. 일본 내 신도의 종교성 논란

일본 내에서도 신도가 과연 종교인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그것은 메이지유신(1868)이후 신도가 민간종교에서 국가의례로 변화된 상황과 관련 있다.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 당국은 일부 유럽 국가들의 종교정책을

6) 대표적인 인물이 1930년대 신사참배 논란시 미국무부의 정책에 깊게 관여했던 서울의 미국 영사 윌리엄 랭던 (William R. Langdon), 주일 미 대사 조셉 그루(joseph C. Grew), 태평양전쟁 전후 미 국무부 극동국 일본과 과장을 역임한 휴 보튼(Hugh Borton)이다. 휴 보튼과 천황제 유지에 대해서는 안종철, 『태평양전쟁기 휴 보튼의 대일정책 구상과 한국문제 인식』(『역사학보』189, 역사학회, 2006. 3), 85-88면; 식민지시기 조선에서 선교사로 활동했고 전후 일본 미군정에서 활동한 이들로 윌리엄 커어 (William C. Kerr)와 윌리엄 우다드 (William P. Woodard)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다드는 민간교육정보국(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종교과에서 활동하면서 신도문제에 깊게 개입했다. 이에 대해서는 William Woodard,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1945-1952 and Japanese Religions* (Leiden, Netherlands: E. J. Brill, 1972), pp. xv-xvii, 40-42.

본받아 신도를 국교로 채택하려고 했다. 1867년 11월 17일에 정부가 쇼군(將軍)과 다이묘(大名)들에게 보낸 문서에는 “신기관(神祇官) 및 태정관(太政官)을 각기 옛날처럼 재흥시킬 것을 생각”한다고 기록되었다. 신기관은 종교를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아울러 동년 12월 9일에 발표한 ‘왕정복고의 대호령’은 “모든 일은 진무[神武]천황의 건국으로부터 비롯”한다고 했다.⁷⁾ 이는 천황통치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체제의 확립을 알리는 것이었는데 천황통치는 고대의 제정(祭政)일치의 정체를 복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메이지 정부는 토착신을 모신 신사인 산토사(産土社)에서 주변의 일정범위에 걸쳐, 씨족신을 모시는 주민들을 등록시키는 정책(우지코 시라베; 氏子調べ)을 취함으로써 일반인들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불평등 조약개정과 서구문화 흡수를 위해 서구를 방문하고 1873년 돌아온,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를 단장으로 한 사절단은 국교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왜냐하면 사절단이 서구 각지에서 일본정부에 의한 기독교 박해에 대해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신도를 국교화하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했을 때 서구 국가들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할 가능성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메이지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일본 제국 헌법 제 28조에서 규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일부 신사를 ‘종교’가 아닌 ‘국가의례’의 영역으로 복속시켰다.⁸⁾ 그러므로 메이지 정부는 국가의례로서의 ‘국가신도’와 종교영역으로의 ‘교파신도’를 분리했다. 그러나 그 예식은 대동소이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가 국가의례가 됨으로써 다른 많은 종교들, 특히 불교계는 메이지 이전의 우월한 지위를 잃고 신도에 종속된 상태가 되었다. 이때부터 국가신도는 국가의례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보

7) 진무천황은 B. C. 660년에 즉위했다고 믿어지는 초대 천황이다. 신도문제와 당시의 신앙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安丸良夫, 앞의 책, 22-23면.

8) 메이지 유신 당시 신도국교화의 시도는 위의 책, 26-32면, 신도국교화의 실패는 같은 책 6장 「대교원(大教院)체제에서 ‘신앙의 자유’로」 참조.

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했다.)⁹⁾

일본 정부는 이후 국가신도와 교파신도를 각각 신사국과 종교국에서 관장토록 했다. 그러나 두 신도는 그 의례상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국가신사 중 가장 중요한 전몰자 추도시설인 야스쿠니(靖國)신사는 원래 초슈[長崎] 번(藩)에서 행해진 초혼제(招魂祭)의 형식을 답습한 것으로 이는 억울한 영혼의 재앙을 진정시킨다는 민간의 어령신앙(御靈信仰)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국가신사에 대한 참배는 분명히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¹⁰⁾ 이는 신도의 종교성 여부를 사실상 국가가 판단하는 것이 되었으므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다.

게다가 대일본제국헌법 제 28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 규정, 즉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부분도 그 조항의 애매성으로 계속 문제가 되었다.¹¹⁾ 이는 근대서구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규정으로 국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¹²⁾ 즉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라는 구절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사실상 국가가 요구하는 질서에 종속되는 가치일 가능성이 농후했다.¹³⁾ 평화 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가의 위기상황 시 ‘종교의 자유’는 얼마든지 제약될 수 있었다. 그러므

9) 위의 책, 182-187면.

10) 미야타 미쓰오(宮田光雄), 김효진 역, 『현대 일본의 민주주의-제도를 통한 정신』 (교육과학사, 1992), 117-122면.

11) 일본 제국헌법 원문은 김창록, 『日本에서의 西洋 憲法思想의 受容에 관한 研究: 『大日本帝國憲法』의 制定에서 『日本國憲法』의 ‘出現’까지』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부록 1에 수록.

12) 宮田光雄, 앞의 책, 114면.

13) 安丸良夫, 앞의 책, 306-307면.

로 일제의 패망 후 연합국은 전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국가신도의 폐지와 더불어 종교자유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¹⁴⁾

3. 조선신궁(朝鮮神宮)건립과 신사참배 문제의 대두

조선 식민지에서 신사참배 논란은 조선신궁 완공 시부터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¹⁵⁾ 특히 당시 기독교인들이 완공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1925년 10월 케이조[京城-이하 서울]에 국가신사(官幣大社)인 조선신궁이 완공되었다. 앞서 언급한 두 천황의 ‘신위(神位)’들이 경부철도를 따라 서울로 올라오는 예식과 함께 신궁 완공 예식에 경성 소재 각종 학교의 학생들이 대규모 동원되었다. 그러므로 신도를 유교의 제사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측은 이 사안을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 문제는 조선인만이 아니라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중 일부에게도 문제가 되었다. 신궁 완공 한 해 전인 1924년 12월 29일 서울의 일본인 기독교연합회는 신사참배를 우려해서 일본 기독교청년회(YMCA)로 정무총감 시모오카 츄우지(下岡忠治)¹⁶⁾를 불러서(招致), 비공식 회합을 가

14) 일본은 패전 후 헌법 제 20조 “신교의 자유, 정교분리”항목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선언했고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기관으로 등록되었다. 새 『일본국헌법』하에서 국가기관 책임자의 신사참배는, 제 20조 1항, “신교의 자유는 누구에게 대하여도 이를 보장한다. 여하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또는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와 3항,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기타 여하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통해 금지되었다. 현 일본국 헌법은 하세가와 마사야스(長谷川正安), 최은봉 역, 『일본의 헌법』(소화, 2000)의 부록에 수록.

15) 1935년 이전의 조선에서의 신사제도와 참배와 관련된 간단한 고찰은 한석희, 『신사참배의 강요와 저항』, 김승태 엮음, 앞의 책, 43-55면.

16) 1924년 7월 4일부터 1925년 11월 22일까지 정무총감을 역임했다.

지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의 일본인 기독교연합회 회원인 사이토 오토사쿠(齋藤音作)가 신사문제는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¹⁷⁾ 당국은 신사가 “왕실의 조상과 국가의 은인들에게 존경(宗敬)을 바치는” 장소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신사의식이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사이토는 그 근거로 1921년 런던의 로마 카톨릭 기관이 일본에는 “신사참배(神社禮拜)가 강요”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주장한 점을 제시했다. 로마 교황청도 신사참배가 “고대 로마의 황제숭배(帝王禮拜)와 유사”하므로 이는 신에 대한 “대역(大逆)행위”로 보고 있었다.¹⁸⁾ 한편 당시 일본의 일급 학자들로 유명한 동경제국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郎, 1856-1944)¹⁹⁾, 카츠히코 카케히(筧克彦, 1872-1961)²⁰⁾ 등도 “신사참배(神社崇

17) 사이토는 총독부 입업국에서 일했고 경기도 협의회 회원이었다. William C. Kerr, "Shinto Shrine in Chosen," *Korea Mission Field* 21(1925년 4월).

18) William Kerr, Ibid. 그러나 1936년 로마 바티칸 측은 일본의 ‘국가신도비종교론’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1920년대와는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데 1930년대 초부터 이태리 내에서도 파시즘이 대두하면서 로마교황청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교황청의 사절로 일본에 와있던 에드워드 무니(Monseigneur Edward Mooney)는 당시 주일 미대사 그루에게 신사참배는 “교육적 이유, 즉 충성과 애국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Joseph C. Grew to the Secretary of State, "Failure of Certain Mission Schools in Korea to Participate in Memorial Celebrations on September 18, 1932," 1932년 12월 1일 (395.1163/8), 이만열 편, 『신사참배문제 영문 자료집 I-미국 국무성 극동국 문서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이하 『신사참배자료 I』로), pp. 23-25.

19) 이노우에는 동경대 종교학 교수로 국가주의 사상을 강하게 주장했던 철학자로 metaphysics를 형이상(形而上)으로 번역한 인물이다.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가 교육칙어 봉정 시 고개를 숙이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천황에 대한 불경사건’(1890)이 발생했을 무렵 기독교가 가진 반국가성을 강력히 비난했다. 사와 마사히코(澤正彦), 『일본기독교사』(대한기독교서회, 1969)(개정판, 1995), 98-101면.

20) 카츠히코는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 후 1903년부터 동경제대 법학부에서 헌법과 국가학을 가르쳤는데 천황과 국가는 일체라는 학설을 주장했다. 그는 동경제대 법학부 교수들인 호즈미 야쓰카(穗積八東, 1860-1912), 우에스키 싱

敬”는 “종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사이토는 지적했다.

사이토는 아울러 현실적으로도 조선 내 신사문제가 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에서 다루어져 왔으므로 신사참배는 “명백히 종교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신사문제를 종교과에서 담당했다는 것은 신사의 정책이 종교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그러므로 그는 신사의식에서 “종교적 요소”를 제거하든가 학생들과 교원들의 신사참배를 “선택”의 문제로 다루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합 이후 정부총감은 이 문제를 두고 총독과 협의했으며, 총독부는 신사문제를 학무국 종교과가 아닌 내무국 사회과에서 다루겠다고 선언했고²²⁾ 이듬해인 1925년 1월 10일부터 관련 업무가 내무국으로 이관되었다. 이를 통해서 총독부는 조선신궁에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을 동원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했다.

한편 일본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보고 있는 것과 별개로 당시 많은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았다. 1924년 11월에 충남 강경의 공립보통학교 교사가 학교의 아동들을 인솔해서 신사참배를 하려고 할 때 일부 학생들이 참배하려하지 않아서 담당 교사가 학생들이 그냥 돌아오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식민지 당국은 해당 여교사에게 휴직을 명했다.²³⁾ 이듬해 『동아일보』가 이 문제를 새로 건립된 조선신궁문제와 연결시켜 다시 다루었다. 당국을 비판하는 논리로

키치(上穗愼吉, 1878-1929) 등과 함께 천황제 옹호론을 주장한 인물이다.

21) 새로운 관제는 朝鮮總督府訓令 제1호(1925년 1월 10일), 『朝鮮總督府 事務分掌規定中 改正』; 김대호,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朝鮮神宮 건립과 운영」, 326, 338면에서 재인용.

22) William C. Kerr, op. cit., pp. 82-83.

23) 『조선일보』1924년 11월 24일 자, 『기독교신보』1924년 11월 26일 자에 보도되었는데 『동아일보』는 이듬해에야 기사화했다. 사와 마사히코(澤正彦), 『일제하 「신사문제」와 기독교주의 학교』, 김승태 엮음, 앞의 책, 397면. 당시 동아일보는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아마도 조선신궁의 건설이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서 신사참배에 대한 일정한 반대의를 표현한 것이다.

서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키는 것은 민족감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즉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大和族 以外の 祖先을 爲하여 設置한 것이 아니니 神社에 對하여 日本人이 그러한 崇高한 敬意를 表하는 것은 日本民族이라는 點에 意味가 있는” 것이지만 “일본인 이외의 민족이 일본인의 신사를 존중하기를 바라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⁴⁾ 또 “아무 이해가 없는 것은 물론이요 감정상으로 그에 대한 감촉(感觸)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조선인 아동에게 대하여 참배를 강제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일로서 총독부 당국의 교육방침이 “조선인의 민족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난했다.²⁵⁾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조선인 전체에 대해 신사참배를 강요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당국은 조선신궁 완공예식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예식참여를 강요하지 않기로 하고 공립학교 측만 신사예식에 참여케 했다. 그리하여 조선신궁 진좌제(鎮坐祭)가 개최된 1925년 10월 15일 32,000명의 학생들이 행사에 참석했다.²⁶⁾ 직전에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어령대(御靈代)맞이 행사에도 수많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²⁷⁾ 하지만 당시 기독교, 특히 장로교 계통 학교들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제는 사이토 총독의 3·1운동 이후 한국에 대한 유화책으로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았던 것이

24) 『強制參拜問題(上-逆理에 徹底한 教育當局者)』, 『동아일보』1925년 3월 18일.

25) 『強制參拜問題(下-逆理에 徹底한 教育當局者)』, 『동아일보』1925년 3월 19일.

26) 진좌제는 일본천황의 조상신의 혼이 있다고 믿어진 함(函)을 일정한 자리에 두는 행사를 말한다. 진좌제를 둘러싼 인력동원과 분위기에 대해서는 김대호, 앞의 논문, 338-343면.

27) 사와 마사히코, 앞의 논문, 398면. 한편 『동아일보』 1925년 10월 15, 16일 자 사설은 진좌제 당시 기독교계 학교의 동향을 다루었다. 16일자 사설 『信仰은 自由-當局의 注意를 要한다』는 신사는 종교이기에 기독교 측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고 기독교 측을 옹호했다.

다. 특히 신사문제를 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신사문제를 종교가 아닌 사회 혹은 국가의식의 문제로 삼으려고 했다. 특히 1920년대 일제는 서구국가, 특히 기독교 측의 입장을 배려함으로써 신사예식을 둘러싼 갈등을 피해갈 수 있었다.

4. 1930년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서구인들의 인식

일제는 ‘만주사변’ 이후 후방인 조선, 특히 기독교세의 확장으로 유명한 평안도 지역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려고 했다. 특히 평양의 숭실학교는 매우 중요한 강요대상이 되었는데 당시 학교를 관리했던 미 북장로교 조선선교부와 일제측은 일정하게 서로 양보를 통해서 1932년 시점에서는 신사참배가 논란이 되지 않았다.²⁸⁾ 그러나 이 문제는 1935-36년의 일련의 사태, 즉 만주문제의 미해결, 일본 내 헌법 논쟁 중 천황기관제론에서 천황신격론의 승리, 2·26군부 쿠데타를 통한 온건파의 제거 등으로 일본사회가 급속도로 군국주의화되면서 일면으로 신사참배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요되었다. 이번에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는데 결국 논란 끝에 숭실전문학교와 숭실, 승의여학교 등이 1938년 초 폐교되었다.²⁹⁾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 끝에 북장로교, 남장로교 조선선교부가 운영하는 학교들이 폐교되어 학생들이 일본 공립학교로 편입되거나 학교의 운영권이 조선인들에게 넘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1938년 9월 제 27회 장로회 총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선교사들의 조선 내 입지는 더욱 축소되었다. 선교사들의 철수가 신사문제로부터 본격화되어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인

28) 안종철,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미 국무부의 대응, 1931-1937』, 190-197면.

29) 이에 대해서는 안종철, 『중일전쟁 발발 전후 신사참배 문제와 평양의 기독교계 중등학교의 동향』을 참조.

1940-41년 무렵에 한반도에서 철수했다.³⁰⁾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은 신도가 종교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일본 나가사키[長崎]의 로마 카톨릭 교회 신부 콤파즈(J. G. Combaz)의 의견은 개신교계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수천 년간 일본의 관리들과 일반인들이 신사를 “성소(聖所) 및 예배장소(sanctuaries and places of worship)”로 간주해왔다고 주장했다.³¹⁾ 특히 일본 국가, 천황가, 조상들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종교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종교적 편견이 없는 사람들, 당시 일본 사회의 대표적인 분석가 래프사디오 허언(Lafcadio Hearn)이나 앞에서 언급한 이노우에 테츠지로와 카츠히코 카케히 등의 교수들도 신도가 종교의 성격을 버릴 수 없다고 했다.³²⁾ 왜냐하면 신도와 불교는 일본인들의 오랜 종교였기 때문이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선교사들은 일본 제국대학 교수들의 신도에 대한 종교적 정의를 자신들의 ‘신도종교론’의 논리적 근거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동경제대 법학교수였던 호즈미 노부시게(穗積陣重, 1856-1926)³³⁾는 신사참배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조상숭배(ancestor-worship)”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것은 일본의 문화와 일본법의 기저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도 “조상숭배와 관련”이 있으므로 기독교 측이 신사에 참배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보았다.³⁴⁾ 조선에서 조

30) 선교사들의 귀국문제에 대해서는 안종철, 『미국복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 제 3장 참조.

31) Arthur J.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9)(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95 복간), pp. 337-338.

32) Ibid., pp. 338-339.

33) 호즈미는 동경제대 법학과 과장과 귀족원 의원, 추밀원 의장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일본 국수론 법학자이다. 동경제대 법학과 과장, 귀족원의원을 역임한 호즈미 야쓰카(穗積八束, 1860-1912)의 형이다. 두 형제에 대해서는 戰前期官僚制研究會 編, 秦郁彦 著 『戰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東京大出版會, 1981), 205면 참조.

상에게 행하는 제사를 우상으로 금지해온 미국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호즈미의 의견은 ‘신도종교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었다.

서구사회에 잘 알려져있었던 종교학자 가토 겐치(加藤玄智, 1873-1965)의 의견도 적극 활용되었다. 1935년에 가토는 자신의 오랜 연구생활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1,400쪽이 넘는 일본종교에 대한 저술을 출간했다. 그는 이 저서에서 신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피력했다.³⁵⁾ 그는 신도가 “모든 종교의 근본에 있는 믿음”이며 “종교 중의 종교”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파신도만이 아니라 국체신도와 신사신도를 포함하는 국가신도는 모두 “다양한 종류의 종교”라고 주장했다.³⁶⁾ 비록 가토와 다른 제국대학 교수들은 신도문제에 대해서 다른 근거에 기초해서 ‘종교’라고 주장했는데 이들 제국대학의 법학 및 종교학 교수들은 황국사관과 황국헌법 질서를 옹호하면서 1930-40년대 정부의 제정일치 정책을 사실상 뒷받침 해주었다.

한편 학자들의 ‘신도종교론’에 대해서 전시체제이전의 일본의 언론도, 신도는 일본 고래의 종교로서 “종교적 요소”가 존재하므로 정부가 이를 제거해서 논란이 없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³⁷⁾ 이에는 요미우리(讀賣)와 니

34) "Ancestor Worship in Japan," May 15, 1936,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 자료집자료 II-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문서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이하 『신사참배자료 II』로), pp. 134-136. 이 글은 일본주재 선교사가 호즈미의 “Ancestor-worship and Japanese Law”의 일부를 발췌해서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 보낸 것이다.

35) 『神道の宗教發達史的研究』(東京: 中文館書店, 1935). 가토는 동경제대 철학과 졸업 후 동경제대와 고쿠가쿠인(國學院) 대학의 종교과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신도는 종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36) “Fulton to Friend,” May 15, 1937, “Concerning Relations with Golden Castle College (relative to the matter of the shrines)”, 1939, 『신사참배자료 II』pp. 214-215, 402-403. 한국과 일본 주재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신도종교론’의 근거로 가토의 주장을 적극 활용했다.

37) 위의 “Fulton to Friend,” Concerning Relations with Golden Castle College (relative to the matter of the shrines)”, 『신사참배자료 II』, pp. 215-216, 404.

치니치(日田) 신문 등이 대표적이었다. 아마도 이는 일반인들의 상식을 반영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태도일 것이다.

일본에서 장기간 선교사로 활동한 미국 선교사들 중에서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신도종교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D. C. 홀탐(D. C. Holtom)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의 저서는 선교사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신도의식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면서 “신에게 바치는 기도 의식”이 “의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신도의 종교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³⁸⁾ 이와 같은 일본 제국대학 교수들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 선교사들의 연구는 선교사들에게 ‘신도종교론’의 확고한 근거들을 제시해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달리 일본 내 우익과 더불어 일본 온건 ‘자유주의파’들도 신도의 종교적 요소를 지적했다.

신도 내 종교적 요소의 존재를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신도문제가 너무 부각되어 일본제국 내에서 기독교 선교활동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사람도 있었다.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로 오랜 기간 활동한 아더 브라운(Arthur J. Brown, 1856-1963)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입장은 1920년대까지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입장을 대변했다.³⁹⁾ 그는 “전쟁을 통한 일본 국가의 번영과 힘의 성장”은 “정치, 경제적 영향력의 증대”만이 아니라 “신도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당시 일본의

38) "Concerning Relations with Golden Castle College (relative to the matter of the shrines)," 1939『신사참배자료 II』, pp. 400-401. D. C. Holtom, *Modern Japan and Shinto Nationalism: A Study of Present-Day Trends in Japanese Religions*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7)(1943년 판의 개정판), pp. 157-158. 그는 신도는 일본 국민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본의 팽창과 신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39) 브라운은 1895년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회 간사로 들어온 후 해외선교행정에 헌신하여 1903년부터 1929년까지 무려 26년간 해외선교부 동아시아 관련 총무를 역임했다. 그는 자주 선교현지를 방문했고 미일간의 고위층에 많은 지인을 두었다. 그에 대해서는 Arthur J. Brown, op. cit.의 “자료해제” 참조.

국력신장과 종교의 관련성을 짚었다. 그가 보기에 신도가 일본 내 기독교의 성장을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비중을 높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일본에서 “애국적 행위와 종교적 행위의 유사성” 때문에 “서구적인 종교개념”을 일본에 적용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⁴⁰⁾ 그는 사실상 신사참배에 타협할 것을 제안한 셈이다.

선교사 중에는 브라운처럼 정치적 타협점으로서의 신도를 이해하지 않고 종교상대론적 입장에서 신도를 이해할 것을 주장한 사람도 있다.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어거스트 라이샤워(August K. Reischauer, 1879-1971)⁴¹⁾는 일본의 사상, 특히 불교에 관심을 가졌고 그 내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는 그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영국 왕립협회 일본지부의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일본 문화를 깊게 연구한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선교사들의 일본문화에 대한 무지를 비판하기도 했다. 신도에 대해서는 종교로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국가신도와 교파신도의 구별을 받아들였다. 즉 후자는 종교의 영

40) Ibid., pp. 337-340.

41) 라이샤워는 인디애나(Indiana)주의 장로교 대학인 하노버(Hanover)대학과 시카고의 맥코믹(McCormick) 신학교를 졸업한 후 1905년 일본에 교육선교사로 왔다. 그는 명치학원(明治學院)에서 교수로 생활한 교육선교사로 일본 동경여자대학을 세웠다. 영국인 조지 샌섬(George Sansom), 일본인 아네사키 마사하루(姉崎正治)과 함께 영국 왕립협회 일본지부를 이끌었다. 특히 조지 샌섬과 관계는 아들 세대에도 계속되었다. 전후 하버드 대학의 일본사교수이자 주일 미대사를 역임한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1910-1989)가 그의 아들이다. 아들은 태평양전쟁 직후에 국무부에서 전후 대일정책관련 보고서 작성에 종사하면서 친황제 유지를 주장했다. 퀘이커 선교사로 후일 국무부 일본과장을 역임한 휴 보튼도 영국 왕립협회를 통해 라이샤워 부자와 면식이 있었다.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New York and Tokyo: Weatherhill Inc., 1986), pp. 13, 18-20. 전후계획에 대해서는 pp. 104-109. 휴 보튼과 왕립협회, 라이샤워의 관계는 Hugh Borton, *Spanning Japan's Modern Century: The Memoirs of Hugh Borton* (New York etc: Lexington Book, 2002), pp. 32, 47.

역이지만 전자는 미국의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⁴²⁾

조선에서 활동한 선교사들 중 평양의 ‘보수적인’인 선교사들은 대체로 ‘신도종교론’의 입장에서 일본 당국의 국가신도와 교파신도의 구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로 숭실전문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신사참배 논란의 핵심인물로 부각되었던 조지 맥쿤(George S. McCune, 한국명 尹山濶)을 들 수 있다. 그는 1935년 11월 14일 평안남도 도내 교장 회의 직전, 도지사가 관내 교장들에게 신사참배를 먼저하고 돌아올 것을 제안하자 이에 반대했다. 그러한 반대로 인해 그는 교장직에서 해임되어 조선에서 추방당했다. 맥쿤이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논리는 그가 평안남도 당국에 제출한,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 측과 함께 작성한 문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문서에는 그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가 네 가지 기술되어 있다. 첫째, 신도의식이 “명백한 종교적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고, 둘째, 많은 사람들이 신사에서 “영령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셋째, 기독교들은 조상숭배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기며, 넷째, 성경에서도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참배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기대”하면서 당국의 유희적 태도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했다.⁴³⁾

42) 라이샤워는 1925년 안식년을 맞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맥코믹 신학교, 인디애나 대학 등에서 일본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강의안이 이듬해 A. K. Reischauer, *The Task in Japan* (New York and Chicago: Fleming H. Revell Co., 1926)로 출판되었다. 이 강연의 자세한 내용에 나타난 라이샤워의 ‘자유주의적’ 입장은 小檜山ルイ, 「帝國のリベラリズム-「ミッドル・グラウンド」としての東京女子大學」, 駒辺武·橋本伸也 編『帝國と學校』(京都: 昭和堂, 2007), 304-310면; 駒辺 武, 「朝鮮における神社參拜問題と日米關係-植民地支配と「内部の敵」」, 『帝國の戰爭經驗』(岩波講座 4: 아시아·太平洋戰爭)(東京: 岩波書店, 2006), 81-82면 참고.

43) McCune to Yasutake, 1936년 1월 18일 자 편지, 이만열 편, 『신사참배자료 I』,

이에 비해 비록 소수파였지만 일본 당국의 국가신도와 교과신도의 구분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지만 신사의 예식에 참여하되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참여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로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한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한국명 元漢慶)을 들 수 있다. 우선 언더우드는 신사의 종교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기독교인들이 취하는 세 가지 정도의 입장을 소개했다. 첫째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신도는 비종교”라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⁴⁴⁾ 이는 당시 조선 내 다수파 선교사들의 입장이었다. 둘째는 신사의 예식이 종교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당국자들의 행동에는 적용 가능하지만 선교사들의 행동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교사들이 신사에서 “예물(offerings)을 바치거나” 기도를 하는 등 예식의 “실질적 부분”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사의 예식에 참여해서 예식이 종결될 때 “목례하는(bow) 행위”는 십계명의 제 2계명과 기독교인의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목례는 “예배(worship)”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⁴⁵⁾ 세 번째는 정부의 ‘신도비종교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사에 예물을 바치거나 자신의 집과 학교에 신도 제의에 사용되는 가미다나(神棚)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선교사들 중에는 이러한 예는 없다고 했다.⁴⁶⁾ 언더우드는 특히 당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

pp. 156-157, 210-211.

44) 물론 이 범주에도 세 가지의 입장이 존재한다고 했다. 첫째, 예식이 진행되지 않을 때만 참석하려는 입장, 둘째는 예식 중에 참석하지만 “고개를 숙이지(bow)” 않으려는 입장, 셋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석하려 하지 않는 입장이다. Underwood to McAfee, 1936년 2월 5일, p. 2. 『신사참배자료 II』 p. 95.

45) 십계명의 제 2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로 요약할 수 있다. 언더우드도 신사의식이 종교적 요소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위의 Underwood to McAfee, pp. 2-3, 『신사참배자료 II』 pp. 95-96.

46) Ibid., p. 3.

해서 자신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이 바로 조선 내에서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언더우드의 입장은, 1938년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의 ‘동아신질서론’이 발표되고 국가총동원법 등이 통과되면서 일제의 반서양적인 정책이 실시되자 설자리를 잃었다.

신도문제에 대한 선교지의 선교사, 외교관들과 본국의 해외선교부 인사들의 입장 차이는 신사참배강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이들의 입장은 해방 후 변형된 형태로 전후 동아시아정책에 반영되었다.

4. 결론

이상에서 1930년대 중후반 미국 선교사들의 신도문제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로 정리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다. 당시 선교사들은 신사참배의식이 종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했는데 그 근거자료로서 유력하게 활용된 것이 일본 제국대학의 종교학과 법학교수들의 견해였다. 아울러 홀톰의 경우에서 보듯이 선교사관련 인사가 저술한 신도에 관한 저술도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해외선교부 총무였던 브라운에게 보듯이 일본인들의 종교관념이 서구와 다르다는 전제에서 서구적 정교분리를 일본사회에 대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 이들도 있었다. 브라운은 1930년대 중후반 본격적으로 신사참배가 강요될 때 현직을 떠났으므로 그가 신사참배 강요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브라운의 견해와 동일한 입장을 가진 이들에게는 선교사업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신사참배문제는 선교사들이 용인 할 수 있는 문제였다.

언더우드에게 보듯이 그는 신도의 종교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교육철수문제가 닦혔을 때 학교 운영자가 일제 당국자와 적극적으로 타협한다면 학교를 선교사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만약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국인들에게 학교를 인계해서 경영토록 하면 기독교적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총독부와의 협력이 전쟁발발 직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해방 후 미군정 사령관 존 하지(John R. Hodge)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친일파’ 청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해방 후 기독교계내에서 신사참배와 친일파 청산이 논란이 되었을 때 언더우드가 신사참배를 수용한 다수파의 입장에 동조했음을 뜻한다.

주일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라이샤워에게 보듯이 일본 내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은 일본정부의 신도에 대한 구분, 즉 국가신도는 종교가 아닌 애국의례라는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들의 기본 입장은 신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구분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후에 일본내에서 천황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장에서 소상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지만, 선교사들의 식민지시기 신도에 관한 인식은 해방 후에도 변형된 형태로 전후의 동아시아질서를 형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ABSTRACT

Between Religion and State Ritual: Disputes about the Japanese Shinto and Westerners' Perception in Colonial Korea during the 1920-1930s

This article has an aim to survey the disputes about Japanese shinto and to see how westerners understood this issue in colonial Korea during the 1920-1930s. During the 1920s Japanese government did not enforce shintoism upon all the Koreans because Japan pursued a conciliatory policy toward the UK and the U. S. In the 1930s, especially around the Second Sino-Japanese War, Japan forced all the schools to go to Shinto shrine for war mobilization in Korea. American missionaries, therefore, had to reveal their attitudes towards this issue since they managed mission schools.

Majority missionaries assumed the 'shinto-religion' theory, the position that is well shown in George S. McCune's case. The faculty members in Religious and Law Department at the Tokyo Imperial University supported this ideas based upon nationalistic thoughts. While these people such as Inouye Tetsujiro and Hozumi Nobusige resorted to anti-western and Japanese particularism with imperial way of historical thoughts and emperor-based legal theory, western missionaries actively appropriated these nationalistic ideas for their ends: anti-shintoism. However, there is a person like Horace H. Underwood who argued that even christians are able to participate into shinto shrine worship except religious parts in the ceremony.

Moreover, American diplomats and several missionaries in Japan would be eager to accept the ceremony based upon religious relativism. Consider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shinto and emperor system, these diverse attitudes about shintoism suggests the ways how the emperor system was handled in post-war Japan.

KEY WORDS : Shinto Shine worship, American Missionary, George S. McCune, Horace H. Underwood, Inouye Tetsujiro, Hozumi Nobusige, Shinto-religion Theory, Emperor System.

■ 참고문헌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독신보』, *Korea Mission Field*.

이만열 편, 『신사참배문제 영문 자료집 I-미국 국무성 극동국 문서 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 자료집자료 II-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문서 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김대호,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朝鮮神宮 건립과 운영」, 『韓國史論』50, 서울대 국사학과, 2004.

김승태 엮음,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김창록, 「日本에서의 西洋 憲法思想의 受容에 관한 研究: 『大日本帝國憲法』의 制定에서 『日本國憲法』의 ‘出現’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학위논문, 1994.

미야타 미쓰오, 김효전 역, 『현대 일본의 민주주의-제도를 통한 정신』, 교육과 학사, 1992.

사와 마사히코, 『일본기독교사』, 대한기독교서회, 1969 (개정신판, 1995).

안충철, 「태평양전쟁기 휴 보튼의 대일정책 구상과 한국문제 인식」, 『역사학

보』 189, 역사학회, 2006. 3.

_____, 『미국복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6.

_____,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미 국무부의 대응, 1931-1937』, 『한국사연구』 145, 한국사연구회, 2009. 6.

_____, 『중일전쟁 발발 전후 신사참배 문제와 평양의 기독교계 중등학교의 동향』, 『한국문화』 4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12.

야스마루 요시오, 이원범 역, 『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신흥종교』, 소화, 2002.

하세가와 마사야스, 최은봉 옮김, 『일본의 헌법』, 소화, 2000.

小檜山ルイ, 『帝國のリベラリズム- 「ミッドゥル・グラウンド」としての東京女子大學』, 駒辺武·橋本伸也 編『帝國と學校』, 京都: 昭和田, 2007.

駒込 武, 『朝鮮における神社參拜問題と日米關係-植民地支配と「内部の敵」』, 『帝國の戰爭經驗』(岩波講座 4: 아시아·太平洋戰爭), 東京: 岩波書店, 2006.

李省展, 『アメリカ人宣教師と朝鮮の近代: ミツシヨンスクールの生成と植民地下の葛藤』, 東京: 社會評論社, 2006.

戰前期官僚制研究會 編, 秦郁彥 著, 『戰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東京: 東京大出版會, 1981.

Brown, Arthur J.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9(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95 복간).

Holtom, D. C. *Modern Japan and Shinto Nationalism: A Study of Present-Day Trends in Japanese Religions*.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7(1943년 판의 개정판).

Woodard, William.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1945-1952 and Japanese Religions*. Leiden, Netherlands: E. J. Brill, 1972.